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ALEM'S CIPHER

가제 : 살렘의 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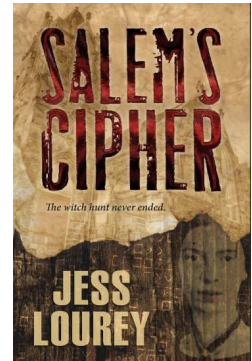
저자 : Jess Lourey

출판사: Midnight Ink

발행일: 2016년 9월 8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소설/스릴러



- * “박진감 넘치고 때때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를 연상케 하는 잔혹한 스릴러”- 「북리스트」
- * “복잡한 인물들이 온갖 장애를 이겨내며 독자들을 머리털이 바짝 서게 만드는 스릴러로 안내한다”- 「라이브러리 저널」
- *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실이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스토리와 결합되어, 음모 이론과 액션 장르 팬들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소설”- 「커커스 리뷰」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리라는 예상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힐러리 클린턴은 비록 고배를 마셨지만, 오랜 세월 미국의 유력 정치인으로 살면서 각종 비리와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며 대통령 문턱까지 올라설 수 있었다. 『Murder-by-Month』 등 여러 미스터리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는 힐러리와 같은 강력한 여성 정치인과 백여 년의 세월 동안 이어진 역사적 수수께끼를 절묘하게 조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끈 『다빈치 코드』와 같은 스릴러를 완성했다. 어느 날부터 실종된 여성들의 숨겨진 공통점, 여성 지하단체를 싹쓸이하려는 남성 우월주의 단체, 그리고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어려운 암호를 풀어나가는 천재 암호학자와 유능한 여성 경찰의 활약에 관한 짜릿한 액션 스릴러 소설이다.

살렘과 이사벨은 비슷한 점보다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았지만 평생 가장 친한 친구로 살아왔다. 아버지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택한 후 광장 공포증에 시달려온 살렘은 비상한 두뇌를 컴퓨터공학과 수학을 파고드는 것으로 잘 활용하여 나름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고 암호해독가로 출중한 능력을 인정 받아, 여러 국가 기관에서 모셔가려는 인재가 되었다. 반면 이사벨은 대학을 포기하고, 괄괄하면서도 거침없는 성격에 꼭 맞는 일을 찾았다. 시카고 시 경찰이 된 것이다. 서

로 평생 친구인 살렘과 이사벨의 두 엄마처럼 자매나 다름없던 두 사람이지만, 가장 겪고 싶지 않은 일마저 똑같이 겪게 될 줄은 예상치도 못했다. 비다와 그레이스, 살렘과 이사벨의 두 엄마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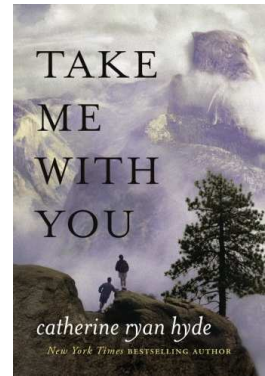
살렘은 어느 날, 이사벨로부터 엄마가 사라지고 이웃이 엄마 집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서둘러 이사벨 엄마의 아파트로 찾아간 살렘은 잘린 손가락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던 중, 익숙한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오래 전 살렘이 엄마에게 만들어준 나무 상자였다. 불길한 예감대로 살렘의 엄마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경찰 몰래 상자를 빼돌린 살렘은 그 안에서 엄마가 남긴 암호를 발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미를 해독한다. “켈러에게 복수에 대해 이야기해라. 그리고 흔적을 따라 집에 가라. 아무도 믿지 마라.” 엄마가 남긴 이 알쏭달쏭한 메시지는 두 사람을 거대한 음모 속으로 내몬다. 그 동안 대통령 선거가 언론을 온통 도배하느라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살렘과 이사벨의 두 엄마는 이 사라진 여성들과 함께, ‘더 그라운드’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드러난다. 남녀 평등을 위해 100여 년 전부터 싸운 이 극비 단체는 ‘허미티지’라는 극단적인 남성우월주의 단체에게 쫓기고 있었다. 허미티지는 현대판 마녀 사냥을 방불케 하는 잔인한 대 숙청 작전에 들어가 ‘더 그라운드’ 회원들이 남긴 암호는 물론, 암호를 알고 있는 모든 자를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미국 최초의 여성 대선후보에 나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원의원 지나 헤이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살렘과 이사벨은 이 어마어마한 음모를 하나씩 풀어헤치면서 허미티지의 가차 없는 칼 끝에 죄 없는 여성들이 죽어 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전면에 나선다.

남녀 평등을 둘러싼 역사적 갈등, 에밀리 디킨스의 시 등 흥미로운 사실과 예술, 음모이론, 암호해독 등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잘 배합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스 라우리(Jess Lourey)는 미스터리 시리즈 『Murder- by- Month』로 잘 알려진 소설가로 대학에서 글쓰기와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미국 미스터리 작가협회에도 소속되어 있다.

제목 : TAKE ME WITH YOU
가제 : 함께 가는 길
저자 : Catherine Ryan Hyd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4년 7월 22일
분량 : 362 페이지
장르 : 소설/ 성장소설



- *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로 제작된 소설 『트레버』의 작가가 선보이는 또 한 권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 * “가족간의 사랑, 그리고 낯선 이들 사이의 사랑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이야기. 내면이 깊은 등장 인물과 이야기의 범위 속에서 독자는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감동적인 여행을 하게 된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잃고 삶이 피폐해져 버린 아버지에게 ‘어른 같은 어른’이 꼭 필요했던 두 꼬마가 나타난다. 여행길에 만난 이 뜻밖의 동행은 점점 허물어지기만 하던 삶에 가만히 불을 비춰주고, 서로가 꼭 필요하던 순간 함께한 인연은 평생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든든한 에너지가 된다. 빠져나갈 방법조차 알 수 없었던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이들의 기분 좋은 이야기는 과학 교사인 어거스트 슈뢰더가 아들의 유골을 옆자리에 싣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떠나면서 시작된다. 어거스트의 아들, 필립이 차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기 전 부자는 요세미티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약속했었다. 원래 여름만 되면 부리나케 산으로, 들로, 자연을 쏘다니는 일이 가장 큰 삶의 낙이자 행복이던 그는 그 해만큼은 필립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기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소중한 아들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혼자 떠나버렸고, 어거스트는 무너졌다. 슬픔을 견디지 못한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고 홀로 남은 그는 내내 유령처럼 간신히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다시 술을 입에 대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가족이 산산조각 나 버린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그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느 여름, 어거스트는 지킬 수 없었던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낡은 자동차를 끌고 다시 길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행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를 가로막았다.

길에서 차가 퍼져버린 바람에 꼼짝없이 외딴 마을에 발이 묶여버린 어거스트는 유일한 정비공, 웨스에게 수리를 맡긴다. 문제는 빠듯한 형편에 겨우 떠나온 여행이라, 차를 고치고 나면 요세미티에서 여름을 보내려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런 난감한 상황을 웨스에게 허물없이 털어놓자 그가 놀라운 제안을 한다. 차를 공짜로 수리해줄 테니 계획대로 여행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내걸렸다. 열두 살, 일곱 살짜리 자신의 두 아들 세스와 헨리를 여행에 데려가 달라는 이야기였다.

알고 보니, 평소 술에 찌들어 사는 웨스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누적되어 조만간 감방

신세를 지게 됐고, 아이들 엄마는 이미 오래 전 집을 나가 행방을 알 수가 없고 다른 친척도 없어서 그 동안 세스와 헨리는 보육시설에서 지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웨스는 딱 90일만 교도소에서 보내면 집에 돌아올 수 있으니, 그 동안 어차피 할 여행에 아이들을 데려가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어거스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펄쩍 뛰며 거절했던 어거스트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는다. 이대로 허무하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집에 돌아가느니, 필립과의 약속도 지키고 기분전환도 하고, 엄마도 없이 철없는 아빠 밑에서 크느라 애처로운 두 꼬마에게 자신이 뜻 깊은 시간을 선물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아 보였다. 그리하여 몸도 마음도 슬픔과 피로에 찌든 어거스트와 애 늙은이 같은 세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형 외에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헨리 세 사람은 요세미티를 향해 여행을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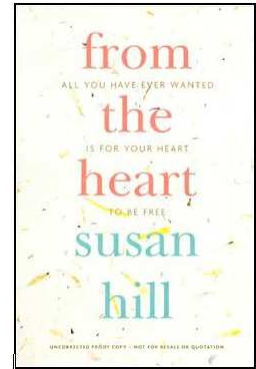
돌봐주어야 하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거스트는 교사로서 또 좋은 롤 모델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두 아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괜찮은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늘 붙어 다니며 어거스트에게 정이 든 아이들은 사실 웨스가 감방에서 보내야 하는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120일이라는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고, 늘 훌륭한 행동만 하려고 애쓰던 어거스트 역시 자신도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치료 받는 중임을 아이들에게 털어 놓는다. 더 가까워진 세 사람의 여행은 영원할 수 없었지만, 그 행복했던 시간은 8년 뒤 또 다른 치유의 여행으로 다시 시작된다. 근 위축증으로 이제 나들이는 꿈도 못 꾸고 외롭게 살던 어거스트에게 스무 살, 열다섯 살이 된 세스와 헨리가 찾아온 것이다. 어거스트가 선사한 아름다운 여행의 기억을 잊지 않은 두 아이들은 이것저것 돌봐주어야 하는 그를 차에 싣고 다시 여행길에 오른다.

종교적인 가르침도 없고 지나친 감상에 빠져 눈물샘을 자극하지도 않고 억지스러운 결말이나 갈등도 없이 시종일관 산뜻하고 간결한 문장과 진솔하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 깊은 감동을 주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라이언 하이드(Catherine Ryan Hyde)는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로 제작된 소설 『트레버』를 비롯해 『두 번째 심장』, 『풍차를 쫓아서Chasing Windmills』, 『내가 너를 찾았을 때When I Found You』 등 가슴 따뜻한 소설을 다수 발표하며 평단과 독자 모두에게 사랑 받는 소설가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글쓰기 외에 다른 일을 하려고 빵 굽는 일, 자동차 정비공, 개 훈련, 여행 가이드 등 다양한 일을 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 FROM THE HEART
가제 : 마음으로부터
저자 : Susan Hill
출판사: Chatto & Windus
발행일: 2017년 3월 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소설/ 여성 소설



- * 가디언이 세계 5대 공포소설 중 하나로 선정한 『우먼 인 블랙』의 작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영국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소설가 수전 힐의 신작
- *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좌악시되거나 비밀이어야 했던 시대, 한 여성의 삶과 사랑, 실수와 회복의 과정을 따라가는 담백하고 진솔한 이야기

여성들이 직업도, 만나볼 남자나 결혼할 사람은 물론 결혼 여부,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이 모든 중대한 선택이 자신의 의지보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런 시절에도 대세 혹은 ‘관습’에 어긋나는 일들은 심심찮게 벌어졌고 그 주인공은 엄청난 대가를 감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꼭 반항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50년 넘게 다양한 장르의 소설로 독자들과 평단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아 온 영국 작가 수전 힐은 올리브라는 특별한 여성을 한 걸음 떨어져 들여다보며 어쩌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고 만 여성의 선택과 그로 인한 파장을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들려준다. 자유롭지 않은 세상에서 마음의 자유를 바라는 여성들, 그 뜨거운 열망을 억지로 누르려는 사회와의 큰 괴리를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 평범한 여성의 눈으로 그린 소설이다.

올리브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실망시켰다. 일단 아들 셋 낳는 것이 목표였던 엄마에게 외동딸로 태어났으니 여러모로 뜻하지 않은 실망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예쁜장하면 참아보겠노라 결심한 엄마에게 지극히 평범한 외모로 또 다시 좌절을 안겨 주었다. 게다가 시력이 나빠 일찍부터 안경을 쓰는 바람에 엄마의 눈에 올리브는 남자 마음 하나 사로잡지 못할 여자아이로 낙인이 찍혔다. 얼굴을 반쯤 덮은 안경을 보며 늘 혀를 꼴꼴 차던 엄마의 핀잔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올리브는 수줍음도 많고 말수도 적지만 영리하고 강단 있는 아이로 자랐다. 엄마 말대로 남자아이들은 꼬이지 않을지언정 어딜 가나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다.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올리브의 엄마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동시에 큰 변화가 동시에 찾아왔다. 남자와 손잡고 길을 가다가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은근히 외면당하던 마가릿을 보고 올리브는 ‘이건 아니다’ 싶어 공개적으로 편을 들어 주었는데, 평소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던 덕분에 올리브의 단호한 주장은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단숨에 가라앉히는 효과를 발휘했다. 고마운 마음에 올리브에게 식사를 대접한 마가릿은 올리브가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의 꿈을 불러 넣는다. 비록 마가릿 자신은 여자 공군에 지원할 것이고 그 이유는 다름아닌 “남자

를 잘 만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올리브에는 이 대화가 대도시로 나가 공부를 할 것인지, 이대로 고향에 눌러 살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얼마 후, 진학 상담에서 올리브는 그 동안 그저 재미 있어서 탐독해 온 무수한 책들이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깜짝 놀라고, 상담 선생님의 권유대로 대학에 들어가 영문학을 제대로 공부해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대학에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금껏 남자친구라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올리브는 대학에서 취미 삼아 연극 무대에 오른 남학생과 알게 되고 곧 연인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더 설렜던 사랑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이어지고, 올리브에게 도저히 어느 쪽도 택할 수 없는 갈림길이 나타난다. 세월이 흘러, 이제 회미해진 줄 알았던 그때의 실수가 가슴 깊이 남아 있는 줄도 모른 채 올리브는 계획대로 좋은 학교에 교사 자리를 얻지만 다시 사랑이 올리브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랑이 절대 세상에 새어나가지 못하게 숨겨야만 한다.

순진하지만 멍청하지 않은 올리브는 세상에서 가리키는 방향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늘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기에 또래 친구들보다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마음의 소리가 사회가 정한 기준과 어긋난다는 것. 올리브가 겪어야 하는 파란만장한 일들은 다 거기에서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 지금과 전혀 다른 옛날 이야기 같지만 가만히 읽다 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로 느껴져 더 큰 놀라움을 안겨주는 강렬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수전 힐(Susan Hill)은 소설가이자 라디오 극작가, 평론가로 50년 넘게 글을 쓰며 살아 왔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던 신입생 시절, 첫 소설 『인클로저』를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졸업 후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작품을 선보이며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내가 그 성의 왕일지니』로 서머싯 몸 상(1971)을, 『앨버트로스』로 존 루엘린 라이스 상(1972)을 수상했고, 『밤의 새』로 휘트브레드 상(1972)을 수상했다. 또 같은 해 부커 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영국 문단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입지를 굳혔다. 1983년에 발표한 『우먼 인 블랙』은 연극으로 제작되어 1988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웨스트энд에서 공연되고 있다.

제목 : THE MAYFLY

가제 : 하루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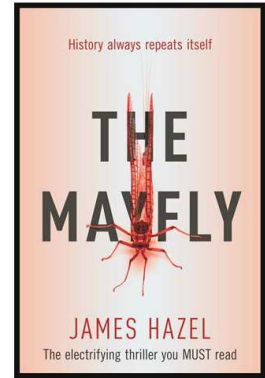
저자 : James Hazel

출판사: Twenty7

발행일: 400 페이지

분량 : 2017년 6월 1일

장르 : 소설/ 스릴러



- * 영국 드라마 제작자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전향하여 소설에 영화 같은 느낌을 불어 넣는 문체로 사랑 받는 **M.J** 알리지, 그리고 「양들의 침묵」의 작가 토머스 해리스의 글이 결합된 듯한 생생하고 흡입력 있는 범죄 스릴러
- * 훼손된 시체, 지독하게 치밀한 살해 계획, **70년** 전 나치 수용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

땅이 온통 얼어 붙은 눈으로 덮인 차가운 12월의 어느 날, 숲 속 자그마한 오두막에서 끔찍한 몰골의 시신이 발견된다. 60여 년 전, 땅 주인이 귀여운 딸이 뛰어 놀 만한 곳으로 지었다는 이 통나무집이 벌레와 잡초로 뒤덮인 죽음의 공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인적도 드문 이곳에 홀로 남겨진 시신은 그저 끔찍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의자에 앉은 채 입과 코는 뒤로 꺾여 있고 가슴팍은 피부가 다 벗겨져 시뻘건 내부와 근육이 다 드러난 모습에, 그 아래로도 비슷한 상처가 무수히 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시신이 발견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고통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자기 심장을 들어내려 이토록 엄청난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체들은 약물이 투여되고 목에서 이상한 물체가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편, 형사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한 해 50만 파운드를 벌어들이는 고소득 변호사로 변신한 찰리 프리스트는 유명한 기업가, 케네스 엘린더로부터 사건 조사를 의뢰 받는다. 아들이 살해된 것 같으니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청이었다. 일찍이 이혼하고 마흔세 살 독신으로 부양할 자식도 없이 안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찰리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형이나 한때 변장하던 변호사 일이 점점 감소세에 접어든 것 말고도, 해리성 장애라는 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왔다. 흔히 ‘이중인격’으로도 불리는 해리성 장애는 일시적으로 영혼이 딴 곳에 보내진 것처럼, 현실감을 잃고 몸과 정신이 분리된 것 같은 기분에 빠뜨린다. 그럼에도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지만, 케네스가 의뢰한 살인사건을 맡으면서 겨우 유지해온 일상은 와르르 무너진다. 이상하게도 증거를 캐내려 할수록 70년도 더 지난 2차 대전 시기, 사람의 목숨 하나 잃는 것쯤 뉴스거리도 되지 않던 절박했던 전쟁터와 관련된 일들이 속속 떠오르고 나치가 만행을 저지르던 죽음의 수용소와 홀로코스트의 잔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찰리가 사건의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목숨은 물론, 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섬뜩한 위협이 가해진다. 급기야 케네스의 아들처럼 갑작스레 사라져 잔혹한 결말

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이야기는 유능하지만 이겨내야 할 문제가 커져이 쌓인 변호사, 찰리가 사건을 맡아 조사를 이어가는 과정과 1940년대 2차 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번갈아 가며 전개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국적의 연합군으로 구성된 부대를 원활히 이끌며 승승장구하던 에인스워스에게 갑자기 찾아온 영국 정보부 요원, 그리고 그가 건넨 의문의 문서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명한 어느 해군 제독이 남긴 서명, 그리고 자신이 찾고 있는 ‘의사’라는 요원의 수수께끼 같은 발언은 그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정체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요원은 전투 중에 다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누울 공간도 없어 겨우 치료를 받고 안타깝게 숨이 끊어진 사람들은 큰 구덩이에 한꺼번에 파묻고 있는 마당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없었냐는 이상한 질문을 한다. 그리고 황당해하는 에인스워스에게, 의사가 없다면 톱이나 메스, 마스크 같은 수술 도구를 본 적 없느냐는 질문까지 던졌다.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열악한 수용소에서 ‘수술’이라는 것을 행한다는 사람과, 외딴 곳에서 잔인하게 훼손된 상태로 반복해서 발견되는 시신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찰리는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계속 파헤치지만 그를 가로막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저자 소개>

제임스 헤이즐(James Hazel)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위 책을 시작으로 주인공 찰리 프리스트가 등장하는 스릴러 시리즈를 쓸 계획이다.

NON- FICTION

제목 : THE TRIAL OF LADY CHATTERLEY'S LOVER

가제 : 법정에 온 채털리 부인의 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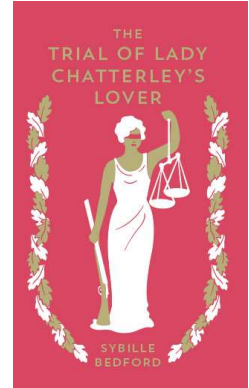
저자 : Sybille Bedford

출판사: Daunt Books

발행일: 2016년 10월 27일

분량 : 96 페이지

장르 : 법률/문학비평



* “시빌 베드포드는 영국에서 문체가 가장 멋지고 큰 성취를 이룬 작가 중 한 사람” – 텔레그래프

* “현대 영어산문의 역사를 쓴다면, 시빌 베드포드는 가장 눈부신 업적을 이룬 사람을 나열한 명단에 빠짐없이 등장할 것이다.” – 저술가 브루스 채트윈

영국에서는 1959년 「외설출판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됐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뒤, 펭귄 출판사는 창사 25주년과 D. H 로렌스 탄생 75주년, 사망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결단을 내린다. 작가의 그 유명한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 무삭제판을 출간한 것이다. 하층민인 산지기 앨러스와 귀족인 채털리 부인 콘스턴스가 불륜에 빠진다는 소재나, 육체적 탐닉과 희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소설은 1928년 완성됐지만 연이어 출간을 거부당하다가 결국 작가가 자비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1932년에야, 그것도 성행위와 관련된 장면은 모두 삭제된 버전으로 출간됐다. 그리고 1960년에 원문 그대로 다시 출간된 것이다. 한 해 전 제정된 법률은 가차없이 적용됐고, 펭귄 출판사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문학 작품의 외설 수준이 법률 위배의 수준에 해당되는가”라는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야 했다.

저술가 겸 소설가로 활동하던 저자는 재판 일정이 잡히자 최종 판결이 내려진 1960년 11월 2일까지 약 보름 동안 「에스콰이어(Esquire)」지의 요청으로 재판 진행 상황과 법정에서 오간 논쟁을 글로 옮겼다. 한창 논란이 벌어지던 시대와 현장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긴 법정 기록이자 법률과 문학, 별개로 보이는 두 분야의 역사를 장식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한 이 글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성행위를 묘사한 열세 가지 장면과 예순여섯 건의 비속어를 두고 판사와 변호인 사이에 오가는 공방, 그리고 배심원단의 분위기는 당시 영국 사회가 내건 도덕적 잣대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기준에 어느 정도의 간극이 존재했는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입증하듯, 재판부는 수많은 작가와 비평가들의 의견과 배심원단의 견해를 참고하여 11월 2일 출판사에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외설적인가? 외설적이라면, 그 수

준은 책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 이 소설을 읽는 행위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일인가, 문학이 선사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가? 자신의 아내와 하인에게 이 책을 건넬 수 있겠느냐, 딸이나 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느냐와 같은 고리타분한 설전부터 문학의 가치를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의미 있는 토론, 그리고 소설의 장면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검사 측에 맞서 저명한 소설가 E.M 포스터까지 참고인석에 앉히고 문학평론가, 교수, 교사, 심지어 성직자까지 동원하여 소설을 지키기 위해 나선 변호인의 날 선 공방이 저자의 멋들어진 문체를 통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법정에서 실제 일어난 치열한 공방을 다룬 책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범죄의 내용이나 희생자,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저자는 지극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소 희한한 법률 절차와 같은 공간을 채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이 역사적인 드라마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록했다. 문학의 역사, 법률,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만한 새로운 장르의 책이다.

<목차>

1. 머리말
2. 『채털리 부인의 연인』 재판

<저자 소개>

시빌 베드포드(Sybille Bedford)는 독일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서 자랐다. 데뷔작 『A Visit to Don Otavio』를 시작으로 세 편의 소설 『A Legacy』 (1956), 『A Favourite of the Gods』 (1963), 『A Compass Error』 (1968)를 발표했다. 이후 자전적 요소가 가미된 소설 『Jigsaw』로 1989년 부커상 결승 후보에 올랐다.

제목 : HOW LONG IS NOW?

가제 : 지금이 언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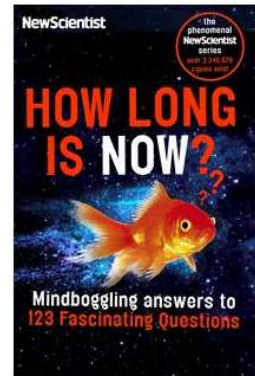
저자 : New Scientist

출판사: John Murray

발행일: 2016년 10월 2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과학



- * 출간 한달 만에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6위, 7천 부 이상 판매
- * 인기 과학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의 한 면을 매주 채운 독자들의 기발한 호기심 191건과 다른 독자들의 답변, 편집부의 조사로 확인된 흥미진진한 해답
- * “읽기 전에는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토록 알고 싶었는지도 몰랐던 질문과 답이 담긴 책 ... 다 읽고 나니 딱 한 가지 질문만 남았다. 후속편은 언제 나오려나?”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Mastemind*」의 작가 마리아 코니코파

실물 잡지 독자만도 100만 명에 달하는 영국의 인기 과학잡지 「뉴 사이언티스트」는 매주 독자들이 보낸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칼럼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왜 젖은 수건은 마르면서 뽀뽀해지는지, 배가 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일상생활에서 문득 궁금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를 이루지만 때로는 호기심이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다. 얼룩말은 왜 줄무늬가 있을까?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까?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을 완전히 삼키는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물질계를 넘어 철학과 과학의 경계에 놓인 궁금증이 독자들의 머릿속을 채울 때가 있다. 하늘도 끝이 있을까? 바다는 물고기의 냄새를 알까? 반대로 물고기는 바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줄어들 기미는 전혀 없이 잡지사로 채도하는 이런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 추리고 또 추려낸 가장 흥미로운 주제와 답변을 다시 다듬고 정리한 결과물이다. 소소한 호기심부터 다소 어렵지만 꼭 알고 싶었던 내용들, 다른 사람이 먼저 물어봤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궁금한지조차 몰랐던 온갖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접할 수 있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지금’은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2,3초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신경과학, 무의식, 시간을 자유자재로 늘렸다 줄이는 명상의 힘까지 생각하게 된다. 우스개 소리 같은 이 질문은 결국 현재를 사는 이 순간을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의미심장한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단순한 호기심이 예상치 못하게 깊은 고찰로 이어지는 질문들이 이 책에 가득하다. 그리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질문은 답을 알고 나면 하나같이 심오하고, “알고 나니 참 좋구나”라는 뿌듯한 느낌을 안겨 준다. 명왕성은 왜 행성이 아닐까? 강아지들은 왜 발이 젖지 않을까? 닭은 알을 낳기 전이 아니라 낳은 후에 왜 더 큰 소리로 울어댈까? 나이가 들면 지문도 달라질까? 자연, 인체, 물리, 지구, 첨단기술부터 집안 곳곳에서 발견한 미스터리한

문제들, 엉뚱한 헛소리처럼 들리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주제도, 깊이도, 의미도 모두 다른 191가지 질문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별 의미 없이 느껴지던 세상을 잠시나마 눈을 반짝이며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 호기심은 책에 없는 무수한 질문들로 잠자던 뇌와 감성을 깨울지도 모른다.

<목차>

머리말

1. 동물의 왕국
2. 그것 말고 더
3. 내부적인 미스터리
4. 사람의 몸
5. 지구의 삶
6. 세상 전체
7. 물리
8. 비행기, 기차, 자동차
9. 기술
10. 도대체 무슨 소리아
11. 마치면서

<저자 소개>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세계적인 주간지다. 1956년 “과학적 발견과 그것이 산업과 상업, 사회에 끼친 영향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를 위한 잡지로 탄생했다. 실물 잡지 구독자만 100만 명이 넘을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온라인, 소셜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과 경로를 통해 400만 명에 달하는 독자들과 매주 만나고 있다.

제목 : THE TRUMP SURVIVAL GUIDE

가제 : 트럼프 시대 생존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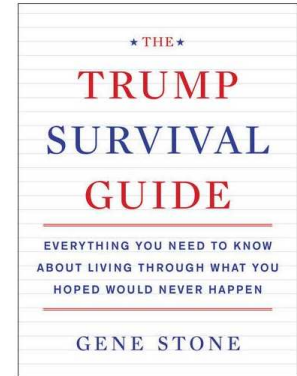
저자 : Gene Stone

출판사: HarperCollins USA

발행일: 2017년 1월 10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정치



- * 부시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 **12만 부 이상** 판매된 「부시 시대 생존 가이드(*The Bush Survival Bible*)」의 후속
- *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10일 전** 출간 예정, 트럼프 정권에 현명하게 맞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과 정보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럴 리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설마’가 현실이 된 것이다. 당선 이후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650만 여명의 유권자들을 비롯한 무수한 미국 시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 전체가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로 양분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논란과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예상하고 대비할 때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부시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금만큼은 아니었지만 충격과 혼란에 빠진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했던 저자는 다시 한 번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 전략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이미 었어진 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대해 괴로워하고 당황하는 대신,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트럼프 취임식 10일 전에 출간될 이 책에는 그가 대선후보 시절에 제시한 정책을 분야별로 꼼꼼히 분석하고 각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 보인 행동과 말을 두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니 극단적인 판단으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과 취임 전의 행보로는 아무것도 속단할 수 없다는 두려움 섞인 비판론이 엇갈리고 있다. 저자는 대통령의 업적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말해줄 것이지만, 트럼프가 그 동안 무수히 드러낸 극단적인 성향과 지금까지 지명한 내각 구성원들의 면면을 토대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고 독려한다.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려는 세력의 도움을 받아 나라 전체에 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것을 막는 것 또한 국민의 의무라고 단언하면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방법과 현명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지자가 판이하게 갈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사람들처럼 비방하고, 책망하며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이제 다 끝났다”는 식의 과도한 좌절에 빠지는 대신 트럼프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표로 당선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미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혹은 경악하게 만든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민의 힘으로 막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준다. 책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시민권과 경제, 교육, 에너지, 사회복지 사업, 환경, 이민자, 성 소수자, 국가안보, 오바마 케어 등으로 나뉘어 구성되며 저자는 각 항목에서 한동안 잊고 지냈던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정확히 짚고 오바마 정권은 각 이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정리하는 한편 트럼프는 앞으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혹은 택하지 않을 것인지) 전망한다. 이어 참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 한탄하는 대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와 확고한 믿음을 토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가장 필요한 시점, 적절한 시점에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방법을 꼼꼼히 제시한 영리한 전략서다.

<목차>

머리말

시민권

경제

교육

에너지

복지 계획

환경

이민자

성 소수자

국가안보

오바마 케어

정치적인 문제

여성

결론

<저자 소개>

진 스톤(Gene Stone)은 도서, 잡지, 신문 편집자이자 저술가로 『How Not to Die』, 『The Secrets of People Who Never Get Sick』, 『Forks Over Knives』 등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열두 권과 미국 전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저서 다섯 권을 비롯한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스탠포드와 하버드를 졸업하고 평화봉사단에서 일한 후 극작가, 저널리스트, 편집자로 일해 왔다.

제목: CRUX: A Cross- Border Memoir

가제: 난관: 경계에 관한 회고록

저자: Jean Guerrero

출판사: One World

발행일: -

분량: 280 페이지

장르: 회고록



*** 2016년 PEN/FUSION 신인작가상 수상작**

***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심오하고 복잡한지 경의를 표함으로써,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국가와 문화의 개념을 너머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작품” - PEN/FUSION 심사위원 마리 아라나**

오가는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가끔 특이한 문구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다. “국정원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정치적 음모론과 “악마의 숫자 666을 조심하라”는 종교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팻말을 들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눈빛과 음성이 사뭇 진지하다. 우리에게 허황된 소리만으로 들리지만, 당사자는 굳게 믿고 있다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진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떨까?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가장 믿음직하고 기대고 싶은 존재여야 할 아버지라면?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신경과학을 부전공으로 택할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일이 직업인 저자는 CIA가 자신을 실험하며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아버지와 대면해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어릴 때부터 저자와 가족들을 혼란스럽게 한 아버지가 대체 왜 그러는지, 알아내야 하고 알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특히 스무 살이 된 저자를 얹어놓고 아버지가 털어놓은 CIA의 음모는 실제로 1950년대에 CIA가 마약 중독자와 불법체류자, 매춘여성 등 사회적으로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조종 실험의 내용과 유사했기에 기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딸로서 저자는 아버지가 말한 일이 사실인지 조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전쟁과도 같은 그 기나긴 탐구의 시간은 온전한 정신과 광기 어린 정신, 역사와 현재, 문화와 언어, 과학의 세계와 신비하고 영적인 충동이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회고록으로 완성됐다.

멕시코인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자는 마야 왕국의 신화와 전설, 역사가 집대성된 문집 『포폴 부(Popol Vuh)』의 구성을 그대로 본 따 총 일곱 부분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겪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 문집에 담긴 이야기 중 마야 쌍둥이 영웅이 오래 전 자신들의 아버지가 물리친 지하세계의 신, ‘시발바(Xibalba)’를 찾아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숨결을 되살리는 이야기 역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를 이해해보려고 끊임없이 애쓴 저자의 삶과 닮은 구석이 있다. 오랜 세월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위스키를 물처럼 마셔대던 아버

지는 마침내 마약을 끊었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무당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저자가 어릴 때 아버지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저자는 나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어쩌면 아버지의 이 모든 증상, 혹은 기이한 행동들이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아버지의 증조모가 죽은 영혼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주술사로 일했다는 사실 또한 저자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진실과 환상의 경계를 드나들며 가족과 자신의 정확한 현실을 알아내고자 애쓰던 저자는 멕시코 국경에서 취재기자로 일하던 중 직접 사후세계를 경험한다.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발을 단단히 디디기 위해 사방으로 고투를 벌여온 저자의 힘겨운 여정과 특별한 경험, 삶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 시발바(xibalba)로 가는 길

2부 – 어둠의 집

3부 – 면도칼의 집

4부 – 추운 집

5부 – 재규어의 집

6부 – 불의 집

7부 – 박쥐의 집

<저자 소개>

진 게레로(Jean Guerrero)는 가우처 컬리지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KPBS, NPR, PBS 보도기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재해 왔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도 기사를 게재하고 여러 차례 수상했다.

제목 : DIGITAL KIDS

가제 : 디지털 키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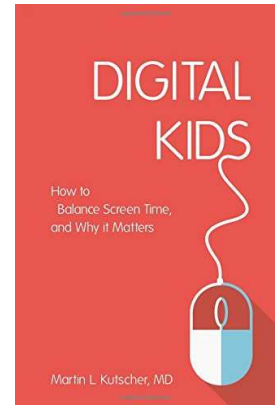
저자 : Martin L. Kutscher

출판사: Jessica Kingsley Publishers

발행일: 2016년 10월 21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건강/육아



- * “사이버 공간의 안과 밖을 명쾌하고 쉬운 말로 설명하고, 디지털 시대에 폭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알려준다.” – 소아과 전문의 마크 밴스릭
- * “부모들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포괄적이면서도 세심하게 알려주는 책” – 캐나다 **ADHD** 인식센터 대표 하이드 번하르트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 인터넷을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2013년에 미국 소아과학회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서도 아이들이 기계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지 수치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하루에 거의 여덟 시간, 고학년과 중고등학생들은 무려 열한 시간을 디지털 기기 앞에서 보낸다는 놀라운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또 자기 방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어린이는 전체의 71 퍼센트에 이르고 십대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은 문자메시지를 100통 이상 보내는 한편 15분마다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들여다본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 중에 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이 없는 경우가 3분의 2나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도 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친구, 연인과 함께 하는 시간에도 각자 자신의 기기로 인터넷 세상을 누비느라 정신 없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단속을 해야 할까? 대다수의 부모가 고민은 하지만 확고한 기준이 없으니 아이들을 통제하려던 결심은 늘 흐지부지 원점으로 돌아간다. 25년 이상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학습 장애 등 소아 신경질환을 치료하고 연구해온 저자는 바로 이 기준을 제시한다. 신경학,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최근 밝혀진 연구 결과와 긴 세월 임상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저자는 인터넷이 유용한 도구에서 해로운 기술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과잉’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아이들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아직 성장발달이 끝나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학습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도 모른 채 다그치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은 가족 전체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 저자는 자녀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중독된 건 아닌지 염려하는 부모들을 위해 중독을 가능할 수 있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이가 스스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과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 교실에서 노트북을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 디지털 기기로 책을 읽는 것을 둘러싼 논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비디오 게임이 아이들의 정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등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특히 ADHD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경우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인터넷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
- 인터넷의 좋은 면
- 인터넷 사용시간의 범위
- “문명의 종말”은 이미 이전 발전 단계에서 선언되지 않았던가?
- 부모의 딜레마와 관리자로서의 역할
-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문제
- 이 책의 구성

1. 디지털 기술의 사용 문제
2. 디지털 기술의 내용 문제
3. 특정 그룹에 해당되는 문제
4. 부모의 역할
5. 규칙 만들기: 가족 회의, 합의점 찾기
6. 인터넷 중독: 인터넷이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
7. 요약 정리

<저자 소개>

마틴 L. 쿠처(Martin L. Kutscher)는 소아 신경학자로 25년 넘게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틱 장애, 학습장애 등 신경행동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를 해 왔다. 저서로는 『Kids in the Syndrome Mix of ADHD, LD, Autism Spectrum, Tourette's, Anxiety, and More!』와 『ADHD - Living without Brakes』, 『Children with Seizures』 등이 있다.

제목 : INNER ENGINEERING

가제 : 마음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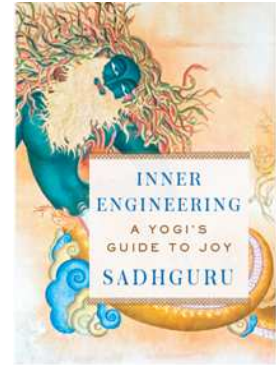
저자 : Sadhguru Jaggi Vasudev

출판사: Spiegel & Grau/Random House

발행일: 2016년 9월 2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불가리아, 루마니아 판권 계약 체결

* 「뉴욕타임스」 ‘조언’ 부문 베스트셀러 **10위**, 워싱턴포스트 베스트셀러 **8위**, 9월 출간 후 현재까지 실물 도서만 **65,000부** 이상 판매

* “저자의 통찰력과 가르침을 읽을 수 있는 매력적인 책. 준비된 자에게는 이 책이 내면의 지성을 일깨우고 우주의 지혜가 담긴 궁극적인 천재성과 마주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 디팍 초프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가 있다. 스트레스가 현대인을 잠식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을 가뿐하게 해 주겠다고 주장하는 방법들도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 권위자, ‘도사’를 자처하는 사람이나 마음을 다잡는 방식이 ‘내가 또 당했구나’라는 허탈한 좌절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무수한 방법들을 살펴보고, 따져봐야 하는 형편이다. 인도의 대표적인 요가 수행자로 빌 클린턴, 디팍 초프라, 돈나 카란 등 전 세계 명사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로 언급하는 인물이자 인도주의 활동과 환경보호 사업에 앞장서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저자는 마음의 평화를 갈구하는 현대인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현실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기쁨이 인생에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가 되도록 하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

저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진 “현재를 사는” 방식은 언뜻 듣기에 그럴싸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 방식에는 마치 원하기만 하면 현재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살면서 켜켜이 쌓인 기억과 인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으로 인해 10년 전에 일어난 일, 혹은 다음 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괴롭힌다고 해서 기억을 억누르고 미래를 무시하며 오로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기억과 전망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자진해서 버리는 것이라 반박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소위 권위자들의 조언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의 마음은 갖가지 활동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이 있고, 이 정신적 활동이 안겨주는 기쁨은 어마어마한데 이를 꺾어버리는 것 자체가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온갖 정보와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흐름에 무조건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을 평화를 얻는 진짜 방법일까? 저자는 ‘자기 변화’를 해답으로 제시한다.

자기 변화는 도덕이나 윤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닌 무한한 특성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요가는 자기 변화의 과정이고, 이 과정이 체화된 존재가 바로 요가 수행자이며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정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입하는 대신 과학적인 근거와 기술, 명확한 경로를 바탕으로 왠지 모호해 보이는 자기 변화,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확실하게 알려준다. 유머러스하고 어려운 표현 없이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삶의 즐거움 찾도록 도와준다.

<목차>

네 글자로 된 단어

1부.

- 독자들에게 전하는 말
- 감각을 잃었다면
- 안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
- 운명을 설계하라
- 경계도, 부담도 없이
- “... 그리고 이제는 요가”

2부.

- 독자들에게 전하는 말
- 몸
- 마음
- 에너지
- 기쁨: 시작

<저자 소개>

사드구루 자기 바수데브(Sadhguru Jaggi Vasudev)는 요가 수행자이자 대규모 인도주의 활동과 환경보호 사업을 실시하는 봉사단체 이샤 재단(Isha Foundation)의 창립자이다. 전 세계를 돌며 국제연합, 세계 경제 포럼을 비롯해 스탠포드, 콜롬비아, 하버드 등 수많은 대학교와 TED 강연에서 가르침을 전해 왔다.